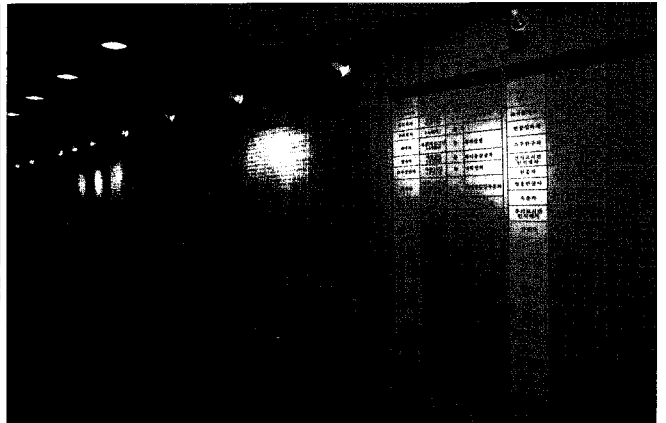




50년간 대전·충남지역 인쇄업계의 구심점 역할

2011년 핫이슈는 스마트QR코드 활용한 혁신



대전충남인쇄조합이 수년간에 걸쳐 꾸민 인쇄역사관의 내부 전경

2011년을 시작한 1월초 대전충남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이하 대전충남인쇄조합)의 사무실은 분주했다. 연초라는 시점이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 하겠지만 수년 동안 지지부진하던 인쇄산업단지의 조성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오래되고 좁아서 더 이상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모색하기에 협소했던 동구 삼성동 일원의 인쇄거리에서 벗어나 새롭게 등지를 마련하기 때문이었다. 또한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인쇄업계의 공통적인 과제인 IT열풍에 대응하기 위한 스마트

QR코드는 대전충남인쇄조합의 핫 이슈가 되어 있었다.

지난 50년간 대전, 충남 지역의 3,000여 인쇄업체의 구심점으로 굳건하게 자리를 지켜온 대전충남인쇄조합의 역사와 현황,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 들어 보았다.

내년이면 창립 50년 맞는 대전충남인쇄조합

대전충남인쇄조합은 지난 1962년 3월 23일 창립총회를 갖고 대전시 중구 선화동 362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초대 이사장

에는 조관호 씨를 선출했으며 같은 해 4월 23일 대한인쇄공업 협동조합연합회에 가입했다. 지난 1998년 12월 현재의 위치인 대전광역시 동구 정동 12-8에 대 178.5㎡, 연건평 552.36㎡의 조합인쇄회관을 매입해 다음해 입주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출발했다.

2000년 2월 제38차 정기총회에서 조합명칭을 현재의 명칭인 대전충남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으로 변경해 시대적인 변화에 대응했다. 한편 조합 건물 3층에 인쇄전시관을 두기로 하고 대전 동구청의 협조를 받아 금속활자 디오라마 1조(5세트), 활판인쇄 디오라마 1조(4세트), 목각판 원판 1판, 목판 복각판 2판, 금속활자 판각 복각판 1판, 금속활자 시연모조품 1판을 인수해서 전시하는 등의 준비를 마치고 2003년 10월 인쇄역사관을 개관, 인쇄문화산업의 면모를 알려 지역 인쇄업계의 자긍심을 더하고 교육적인 전시를 통해 일반인들에게도 문화산업으로서의 인쇄산업을 다시 인식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인쇄업계 권익보호 사업을 활발히 전개

2011년 현재 대전충남인쇄조합은 구자빈 이사장을 중심으로 권재홍 상무이사 이하 여러 직원들이 약 400여사에 달하는 조합원사들은 물론 3,000여 인쇄업체를 위한 권익보호사업, 기본실태조사 사업과 공동구매사업, 시설재 및 원부자재 구입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대전충남인쇄조합이 하고 있는 사업은 조달청 인쇄기준요금 적정화 추진, 조합원 행정간소화를 위한 건의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실무적으로 필요한 공동 구매사업으로 조합원사에 필름, PS판, 현상액, 고무액, 복사지, 지류 등을 공급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해마다 해외 각국과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인쇄단체와 교류하고 조합원을 파견하고 있기도 하다. 이외에도 정부의 정책과 인쇄산업 발전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조합원 실태의 통계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1년의 키워드는 '대덕특구 인쇄산단'과 'QR코드'

대전충남인쇄조합은 지난해부터 극적으로 실마리를 찾아 올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대덕특구 인쇄산단'이 최대의 역점사업이 되었다. 오랫동안 지역 인쇄업계의 보금자리가 되었으나 노후화되고 협소하여 이제는 인쇄업계의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고 인쇄거리의 재개발과 새로운 등지로의 이전이 단순한 장소 이동 뿐 아니라 지역 인쇄업계의 비약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대전충남인쇄조합은 대덕특구 인쇄출판산업단지



구자빈 이사장, 류정열 조합장과 함께 한 대전충남인쇄조합의 권재홍 상무와 직원들

추진조합을 결성해 성공적인 '대덕특구 인쇄산단'의 조성과 운영에 전념하고 있다. 26만여 평방미터에 달하는 국내 최대의 인쇄출판 산업단지이자 전국 인쇄산업의 3대 축인 대전충남 인쇄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오며 복합문화산업단지로 성장해 수도권권을 제외하면 사실상 전국적인 인쇄, 출판물의 유통 및 마케팅의 거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대전충남인쇄조합의 또다른 키워드는 'QR코드'다. 정확하게 말하면 '스마트QR코드'인데 핵심적인 기능은 인쇄물과 동영상의 결합이라는 점이다. 대전충남인쇄조합의 구자빈 이사장은 스마트QR의 전도사를 자처하고 나섰다. 구 이사장은 "지금까지 IT 바람의 영향으로 이른바 종이책은 서서히 또는 급격히 그 시장을 잃어버리고 말 것이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지배적이고 암울한 전망이었지만, 이제는 '스마트QR코드'로 인쇄 실질적인 추가비용의 부담없이 인쇄물과 동영상 및 특수기법의 유기적인 결합으로 인쇄물 수요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전충남인쇄조합을 중심으로 '스마트QR' 코드가 인쇄업계에 끼치는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를 사업적으로 접목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구 이사장과 대전충남인쇄조합 임직원들의 마음은 바쁘지만 인쇄업계의 새로운 비전 제시를 위해 뜨겁게 불 타 오르고 있다. ☞

김상호 부장 kshulk@print.or.kr